

조계사 앞에 성탄트리 불 밝혀

총무원장스님, 예수님 탄생 축하메시지도 발표

종교간 화합을 상징하는 성탄트리
가 올해도 서울 조계사 앞에 불을 밝
혔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지난 16일 조계사 일주문 앞
에서 생명과 나눔, 평화의 실천을 의
미하는 세 개의 트리를 설치하고 성
탄절을 축하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점등에
앞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성탄 축
하 메시지는 올해로 12번째이다. 총
무원장 스님은 ‘예수님 탄생을 축하
하며’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 내 안의 부처를 내 이웃
의 예수를 사랑하자”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조계사 주지 토진스

님, 문화부장 진명스님, 재무부장 도
문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을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등 각 지역에서 온
가톨릭 부제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
가자들은 생명, 평화, 나눔을 구호로
외친 뒤 트리를 점등했다. 또 조계사
합창단의 캐롤송을 부르며 종교화합
과 평화를 기원했다.

이정주 가톨릭 신부는 “서로를 이
해하려는 마음이 모여 결실을 맺었
다”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돼 더 뜻깊은 축제가 됐
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
서 가톨릭 부제들은 조계사에서 불
교문화와 교리를 배우는 시간도 가
졌다.

홍다영 기자



조계종은 지난 16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가톨릭 신부와 부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트리 점등식을 거행했다. 신재호 기자

■ 총무원장스님 성탄메시지 전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내 안의 부처
를 내 이웃의 예수를 사랑합니다.
기쁜 성탄 세상의 모든 빛들이 예수
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자기 안의 빛을 바로 보고 그 빛을
더욱 밝혀 그늘진 이웃을 살피아겠습
니다.

나를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가

간절하고 더 간절하여 사회와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을 맞아
나를 돌아보고 내 안의 빛에 화답하며
사회를 밝히는 한 점 불빛이 됩시다.

예수의 길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고
내 삶과 이웃의 삶을 사랑합니다. 이
웃의 행복을 위한 길을 떠납시다. 함
께 정진합시다.

불기 2555(2011)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언론종사자들에게 격려보낸다”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

제19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수
상한 KBS ‘다르마’ 등 수상작에 대
한 시상이 상금 1000만원 수여와 함
께 지난 13일 열렸다. 이날 불교언론
인상에는 강신철 한국안전인증권 이
사장이 수상했고, TV부문 최우수상
은 대구MBC HD특별다큐멘터리
(고려조조대장경), 라디오에는 국악
방송의 ‘부처님오신날 특집’, 신문
부문은 <법보신문>의 ‘연등회, 왜 문
화재 지정돼야 하나’ 등이 각각 상금
500만원이 수여됐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주최하고 불교
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불교언론문화상은 지난 2010년도 11
월1일부터 2011년도 10월31일까지
발표, 방영된 언론보도를 대상으
로 진행돼 총 36명이 접수, 예심을 거

쳐 본심에는 TV 8/24개, 라디오 3/5
개, 신문 6/7 등 총 17작품이 올라 수
상작을 선정했다.

이어 우수작중 우수상인 KBS 설
특집 다큐멘터리 ‘신학자 폴 니터의
한국 선(禪)기행, 나에게 너를 묻
다’, BBS 개천절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태어난 삼국유사, 500년의
꿈’, <주간불교> 연중캠페인 ‘장기
기증은 또 다른 보시’ 등과 특별상의
백성호 기자(중앙일보 문화부 종교
담당) 등에게는 상금 200만원씩이 각
각 수여됐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
화예술공연장에서 사부대중 2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상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기사
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과 선조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의 원력이 깃든 다양한 문화를 종생
에게 널리 전해지게 하는 언론종사
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치하했
다. 불교신문 사장 수불스님은 축하
사를 통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발전과 한국사회의 변화를
일궈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준
언론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격려했
다.

김종찬 기자

한일운동가단체연합 구성

‘운암사협회’ 등 17개 단체

한일에국지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단체들이 연합 단체를 구성했다. 한
일운동가단체연합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일
운동가단체연합회 출범을 알리는 창
립총회를 개최했다.

연합회는 한일협정 무효와 재협상
운동, 바른 민족사관 정립, 남북 평화
체제 성립 등을 주요 사업으로 발표
했다. 연대 사업으로 학술사업, 인촌
김성수 ‘친일행적 사료 발간’, 한중
일 공동 역사 복원·평화운동 등을 계
획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창립 선언문을 통
해 “자부심과 긍지를 지닌 민족으로
서 역사를 바르게 정립하고 민족공동
체 정신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에는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
협회 등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제주불교 본연 수행풍토 확립”

관음사 주지 성효스님 취임식

500여 사부대중 폭설 속 동참

“제주 30만 불자와 국제적인
제주도의 세계적인 관음사가 되
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6일 조계종 제23교구본
사 관음사에서 봉행된 관음사 주
지 이·취임식에서 제34대 주지
성효스님이 취임사를 통해 이갈
이 말했다.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사부대
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
법하게 봉행된 이날 행사에서 성
효스님은 “본사로서의 사격을
회복하고 조계종단의 심혈을 기
울여 실천하고자 하는 5대결사
에 발맞추어 제주불교 본연의 수
행풍토를 확립하고 불교적 가르
침을 실천하는 수행가 문화환경,
나눔의 생명결사를 해나갈 것”
이라며 “국제적인 규모의 선수
행센터와 템플스테이 공간 등을
건립, 민족의 영산 한라산의 품
속에 세계인을 감싸안을 관음사
가 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
았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
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범어를
통해 “내년으로 본사 지정 50주
년을 맞이하는 관음사가 제주도
민의 신심을 증장시키고 불자와
지역주민들의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며 “타지역과는 다른 독특
한 문화와 불교구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러 종단이 다양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화합하는 모습을 통해 제주도민
의 불심을 복돋는 것은 아무리 강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는 지난 16일 폭설속에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지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조해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또 “어
렵고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을 묵
묵히 극복해가며 지난 4년 동안
제주불교의 안정과 재도약의 발
침을 실천하는 수행가 문화환경,
나눔의 생명결사를 해나갈 것”
이라며 “국제적인 규모의 선수
행센터와 템플스테이 공간 등을
건립, 민족의 영산 한라산의 품
속에 세계인을 감싸안을 관음사
가 되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
았다.

교구본사 진산식에 보기 드물
게 이임식과 함께 열린 이날 행사
에서는 전 주지 원종스님이 이임
사를 통해 4년 임기 내내 수많은
소송등로 곤욕을 치렀음을 토로
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불교자비
원을 관음사 품으로 되찾아 오는
데만 3년여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각종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관음
사 삼보정재를 처분하는 아픔도
있었다”며 “이제 관음사는 중창
불사를 통해서 세계인이 찾는 아
름다운 섬 제주의 한국불교 아이
콘이 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종회의장 보선스님은
“성효스님의 주지 취임으로 23교
구 사부대중의 화합과 제주불교
의 충흥을 이룩해 낼 것을 의심하

지 않는다”고 격려했고,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은 치사를 통해
“어려웠던 지난 4년간의 관음사
살림을 원만히 회향하고, 이제 관
음사가 제주의 모든 불자님들과
함께 큰 역할을 하길 기원한다”
고 말했다.

이날 주지 이취임식에는 총무
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중앙종
회의장 보선스님, 중앙종회의원
50여명, 용주사, 수덕사, 군중교
구 등 교구본사 주지 등 스님들과
우금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
롯, 문대립 도의회의장, 양성언
교육감, 강창일 국회의원, 김우남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축하화
환을 대신해 받은 자비나눔의 쌀
1000여 포대를 제주시에 전달했
으며, 제주대학교에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제주 한일메아리
예술단과 제주연합합창단, 제주
대 성악과 학생들이 축하노래도
선보이기도 했다.

관음사=하정은 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연우, 인사동서 팔죽 보시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사단법
인 연우(이사장 구자선)는 지난 17
일 인사동 남입사 마당에서 ‘2011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 행사를 개최
했다.

‘나눔과 베풀, 그리고 새 희망을
이야기 하는 작은 설’이란 부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2000명 분량
의 동지팔죽을 쫌서 나눠먹는 것을
비롯해 벼사의식 및 고유문 낭독,

신년달력 나누기, 소원 쓰기 등 다
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또 가야금,
풍물, 난타 등의 전통공연과 투호던
지기,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선보
였다. 의료봉사단 ‘반갑다 연우야’
에서는 이웃들을 위한 무료 치과검
진도 진행했다.

장성원 연우 행정팀장은 “예로부
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하여 음식
과 달력을 나누고 새로운 해를 맞이
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밝혔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성동구치소 하반기 수계법회

성동구치소 불교 교정협의회는
지난 14일 ‘성동구치소 하반기 불
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서울 구형사
회주 정우스님과 교정교화전법단
본공스님(불광사), 조계종 포교사
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20여명의 수용자들이 수계
복을 입고 오계를 수지했다. 이어
포교사단은 이날 오계를 수지한 불
자수용자들에게 <광명진언 사경집
>을 나눠주며 꾸준한 신행활동을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www.wdu.ac.kr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차(茶)문화전문가의 꿈을 채우세요

찾임 하나에 수많은 이야기와 향기가 존재하듯 당신 안에도 수많은 가능성과 미래가 있습니다.

꿈으로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큰 당신의 열정으로 더 큰 세상의 리더가 되십시오.

글로벌 리더가 될 당신의 미래, 원광디지털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차문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4년제 대학!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 차(茶)관련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대학
- 한국 차문화 행사 기획 주관 및 콘텐츠 전문가 양성
- 국내 · 외 차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교류
- 실습활동 지원, 경영과 창업으로 학생진로 모색



나를 채우는 특성화교육 -
원 광 디지털 대학교

2012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 모집기간 : 2011년 12월 1일(목) ~ 2012년 1월 3일(화)

• 모집학과

행정건강학부 : 한방건강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한국문화학부 : 한국복지학과, 차문화경영학과,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실용복지학부 : 사회복지학과, 식물재활복지학과, 경찰학과, 부동산경영학과, 얼굴경영학과, 경영학과

입학상담 1588-2854 ※ 자세한 사항은 원광디지털대학교 입학홈페이지(enter.wdu.ac.kr)를 참조하세요